

KIA 기아차 광주경제 이끈다

(중) 디자인 광주의 홍보대사 '쏘울'

광주수출 '쏘울 효과'

'네모 차 개성' 글로벌 아이콘됐다

지난해 9월 22일 기아차 사옥. 국내외 기자를 비롯, 신차 발표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못생긴 '네모 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승용차와 SUV 경계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CUV), '쏘울'이 공개됐을 때다.

날렵한 곡선이 세련된 자동차 디자인에서 무뚝뚝한 직선을 쓴 과격적 디자인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밀고 있는' 야심작이라곤 하지만 '이런 차도 있나', '과연 팔릴까'라는 의문도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쏘울은 '독특하고 귀엽다'거나 '신선하고 개성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10만 6천187대가 팔렸다. 고객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북미·유럽 시장에서 팔린 수출 물량이 7만9천대가 넘고 지난 9월에는 한 달 수출 물량만 1만대를 넘어섰다. 수출 백오더(계약 이후 출고를 기다리는 차량) 물량도 2만1천대를 훌쩍 넘겼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야심작 '쏘울'인가가 식을 줄 모른다. 각종 상을 휩쓸면서 당초 판매 목표보다 66% 상향 조정된 증산 계획이 나오는가 하면, 최첨단 설비를 갖춘 광주공장을 글로벌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기아차 광주공장의 '글로벌 대표 아이콘'이면서, 디자인 광주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뽀뽀하듯도 쏘울 인기몰이의



디자인 광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쏘울. 최근 출시된 2010년형은 스포티함을 더욱 강조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관행적인 자동차 트렌드 깬 '히트작' 일 수출 1만대 돌파... 세계로 무한질주

비결은 단연 디자인. 관행적인 자동차 트렌드에서 한참 벗어난 네모난 미디어인 위즈오트로부터 '올해의 박스형 디자인은 개성을 강조하면서 젊고 감각을 지닌 전 세계의 20~30대들을 겨냥했다.'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에 꼽히는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하고 꼬박 30개월동안 1천900억원을 쏟아부었다. 현대·기아차 남양지다인센터와 기아차 해외 디자인 거점이 총동원됐다. 차별화된 디자인은 '무조건 예뻐야 돼.'라는 광고 문구처럼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한국차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를 수

상한 것을 비롯,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인 위즈오트로부터 '올해의 인테리어나-가장 멋진 인테리어나'를 수상하는 등 디자인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능면에서도 인정받아 북미 '올해의 차' 후보 톱 15에 선정되는가 하면 미국 유력 자동차 평가기관인 켈리블루북이 선정한 '5개 최상의 선택차종' 선정,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선정한 '최고 안전한 차량', 미국 텍사스 자동차 전문기자협회의 '2009 스프링 켈리블루북'에서 '기자단의 선택 2009 최고 가치상' 등에도 이름을 올렸다.

소비자 트렌드를 읽는 과감한 시도와 각종 전문가의 호의적 반응은 판매로 이어져 쏘울은 박스카의 원조로 불리는 닌산 '큐브', 도요타 '싸이언x'를 제치고 6개월 연속 박스카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보기보다 넓은 실내공간, 동급 최강이라는 엔진 출력과 개성을 강조한 내부 편의시설 등도 인기 요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실내 디자인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호 사양을 추가한 2010년형 쏘울을 출시, 시장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내년 쏘울의 증산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디자인 광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9월 무역흑자 4억9,200만달러... 전남은 적자

지난달 광주지역 수출이 50% 가까이 급증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이 북미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나타난 '쏘울 효과'라 할만하다.

21일 광주세관이 발표한 '2009년 9월 무역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광주지역 수출이 9월들어 전달보다 49.3% 증가한 9억3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지난 1월 4억8천8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6월에 8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7월 7억8천100만달러, 8월 6억2천500만달러로 주춤거리고 나서 9월에 급증세로 돌아섰다.

9월 수출이 급증한 원인은 자동차가 속한 수송장비 품목이 전월대비 183.9%나 증가한 3억1천800만달러의 수출고를 올렸기 때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달 2만5천676대의 차량을 수출해 전년 동월(1만1천874대) 대비 수출 물량이 116% 늘었다. 특히 쏘울은 북미시장에서 인기몰이에 나서면서 지난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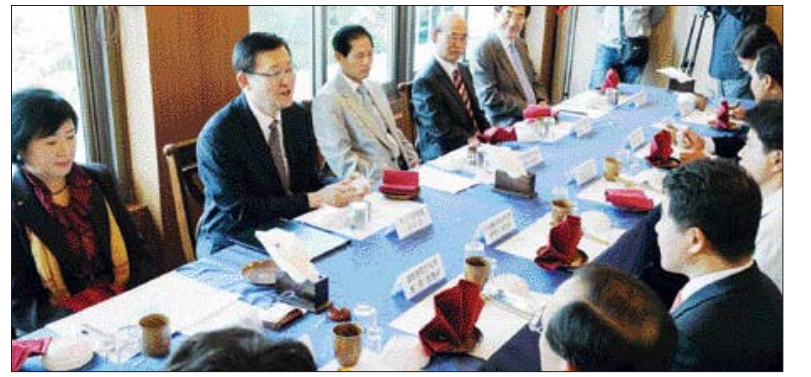
만 1만711대를 팔아 광주 수출의 1등 공신이 됐다.

이밖에 철강제품(75%), 가죽·고무 및 신발류(64.7%), 기계류와 정밀기기(39.4%), 전기·전자제품(12.7%) 등의 수출이 전달보다 증가했다.

반면 9월중 수입은 전월 대비 16.1% 증가한 4억4천100만달러를 기록해 광주 무역수지는 4억9천200만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달과 증감률에 변동이 없는 20억8천100만달러, 수입은 4.7% 증가한 26억9천2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1천1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소통마당



홍석우 중기청장 애로 청취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청 광주전남본부는 21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광주의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마당'이라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과 환율, 대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했고 대기업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류삼오 주태준 대표는 중소기업의

홍석우 중기청장(왼쪽 두번째)이 21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기아차 광주공장 대표와 삼성광주전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한 뒤 "정부에서 실업률 고등화고 활성화나 병역특례업제 지정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이지디지텍(주) 이영남 대표는 "협력사에서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기업에서 명쾌한 주문을 해줬으면 한다"면서 "모기업을 믿고 어떤 부문에 투자를 했는데 납품 시점에서 모기업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인사가 사람 관리라면 구매업은 협력사 관리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오늘 광주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할 것입니다. 2. 귀가 편안합니다. 3.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국제보청기

www.kos.com

본점 (061) 227-9940
 서울점 (02) 227-9940
 송정점 (061)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The Best Technology KOS

퍼져라 푸른빛 물결!

KOS 주식회사 한빛

061-227-9940
 061-227-9970